

특강 2

## 율곡, 그는 누구인가

강사: 정문교(율곡평생교육원장)

제55차 국공립대학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 율곡 그는 누구인가

정문교(율곡평생교육원 원장)

### 1. 출생 및 가족관계

- 출생: 1536년 12월 26일 (음)  
    강릉 북평촌(현 죽현동) 오죽현
- 아버지 - 이원수공, 어머니 - 신사임당의 4남 3녀중 3남으로 출생

### 2. 율곡의 시대배경

율곡이 활동했던 시기는 조선개국이후 오랜 안정속에서 부패가 짹트기 시작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나던 때였다. 특히 연산군 때부터 사림과 훈구세력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연산군 4년에 무오사화가 일어났으며, 왕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 재정이 고갈되자, 이로 인해 생겨난 왕과 훈구세력과의 갈등이 연산군 10년 갑자사회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어 중종이 반정으로 즉위하게 되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등용되는데, 조광조는 왕의 신임을 토대로 하여 유교적인 이상정치인 지치(至治)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개혁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위훈삭탈(僞勳削奪) 사건을 계기로 훈구세력과의 갈등이 폭발되어 중종 14년 기묘사화가 일어났으며 그 뒤 인종과 명종의 왕위계승 문제를 둘러싼 외척들의 대립으로 인해 명종원년 을사사회가 일어났다.

이런 잇따른 사화로 말미암아 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선비들은 적극적으로 국사에 참여하기보다 산림 속에 은거자수(隱居自守)하는 풍조가 성행하였으며 심지어 도학을 기피하려는 풍조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유교적인 이상사회는 올바른 가치관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 적극적으로 봉공의 임무를 수행해 나감으로써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인들이 사회의 영향으로 정치, 사회 현실을 외면하게 되자 여기에서 권력

지향적이거나 기회주의자인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따라서 유가 본래의 정치이념은 퇴색되어 탄력있게 적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점차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모순과 부패가 심화되어갔던 것이다.

예를 들면 농촌은 전제(田制)의 문란과 가혹한 공세(貢稅), 환곡제도의 문란 등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또 군제의 문란으로 군적은 공허해지고 군대의 기강도 해이해졌다. 그 결과 많은 농민들이 유민이 되어 농촌은 황폐해져갔으며, 각처에 도적의 무리가 횡행하게 되었다. 이 때의 대표적인 도적이 유명한 명종대의 임꺽정이다.

율곡은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를 '만칸 고옥이 막 무너지려는 찰라'라고 표현하였다. 또 유명한 「만언봉사」에서는 이 시기를 짧은 때의 방탕한 생활로 원기가 다 손상되어버려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진 노인에 비유하기도 하였고, 또 「사정연소」에서는 '금일의 국사는 큰 병을 앓고 난 뒤에 원기가 회복되지 않고 온갖 뼈마디가 다 아픈 상황과 같아 한번 보호할 기회를 잃게 되면 곧 위급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도 하였다. 또 병조판서 시에 올린 「육조계」에서는 '우리나라가 태평한지 이미 오래되어 방심함이 날로 심해서 내외가 공허하고 군사와 식량이 모두 궁핍하여 조그마한 오랑캐가 변경을 침범하여도 온 나라가 경동하는 지경이니, 만일 큰 오랑캐가 침입해 온다면 비록 지혜로운 자라도 계책이 없을것'이라 하였으며, 또한 '오늘날의 국사는 한 가지도 믿을 것이 없으니 적이 닥쳐오면 반드시 패할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면 10년이 못가서 반드시 화란이 일어나리라는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율곡은 유가적인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계책들을 강구하여 많은 개혁책들을 내어놓게 된다. 유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충분한 경제력, 튼튼한 국방이 근본이며 그 위에 백성들에 대한 도덕적인 교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계승하여 율곡은 당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치관의 미화립과 민생의 궁핍, 그리고 그에 따른 국방력의 약화라고 보았다.

이는 그가 문과 무의 참뜻을 밝힌 말에서도 잘드러난다. 그는 「문무책」에서 문이란 경을 외우는 일이나 문장을 짓는 일이 아니라 교화를 밝혀 백성을 진작, 흥기시키는 데 참뜻이 있으며, 무란 군사나 말의 숫자가 많고 병기가 잘 갖추어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을 견고하게 하여 외적을 막고 나라를 지키는 데 본래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가적인 가치관의 재정비, 민생을 위

한 폐법의 개혁, 그리고 군제의 정비등을 제시하였다. 율곡은 교육제도와 교육의 내용, 그리고 공남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을 완비하고 공남의 폐단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특히, 윤곡은 당시의 잣은 북호(北胡)와 남왜(南倭)의 발호(跋扈)로 인해 군대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여러 곳에서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였다. 윤곡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와 국방 그리고 도덕, 다시 말하면 부국강병과 유가적 가치관의 확립이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도덕이다. 그러나 이 도덕은 현실적인 제 문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할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본래의 의미를 다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가의 도덕을 실제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폐법의 경장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윤곡은 선비들의 절의 정신을 크게 평가하였지만, 사화이후 위축된 사람들이 은거자수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조광조가 지치의 이념을 표방하며 적극적으로 현실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을 크게 평가하였다. 윤곡이 나이 46세 때 친구인 구봉(龜峰) 송익필(宋翼弼)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는 억만의 창생이 물이새는 배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서 이를 바로잡아 구할 책임이 선비에게 있으므로 차마 버리고 물러날 수가 없고, 머물러 있자니 폐단을 구하기 위한 개혁안이 하나도 시행되지 못하여 갈등을 겪는 모습이 적혀있다.

윤곡에 따르면 선비는 도를 이 세상에 펴려는 자이지 녹을 먹기 위해서 벼슬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를 벼슬길에 나아오게 하려면 번거롭게 소명만 내리지 말고 그의 말을 실천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런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개혁의지가 그를 조선조 최고의 경세가로 평가하는 근거이다.

윤곡은 선비정신을 가진 사류들에 의해 세상의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시작된 붕당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류 전체를 보호하려는 것이 그의 기본 입장이었다. 그래서 동서의 화합을 강조하면서, 동서의 붕당은 시비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시비를 밝히느라고 사류를 흘어지게 하면 국가의 원기가 무너져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윤곡은 동인으로 지목되어 곤경에 빠지기도 했지만 끝까지 이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 두 사람의 우열을 따지기 위해 온 사람이 혈전을 할 수는 없으며, 두 사람의 시비를 밝히려는것 때문에 동서로 붕당이 나뉘어 지면 오히려 인재를 잃게 되고, 따라 국맥을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도학적 실천이 경세의 실천에까지 이어져야함을 강조하는 경세가적인 측면이 율곡의 특징으로 지목될 수 있다.

### 3. 율곡의 철학과 사상

- 철학사상
- 예학사상
- 교육사상
- 국방사상
- 천문 자연 사상
- 경세사상

### 4. 율곡은 도학적 경세가 -공직관-

- 부제학 최황(崔滉)의 점심상
- 황주군수 최립(崔笠)의 쌀가마
- 이조판서의 역할 - 인본(人本)사상

율곡은 퇴계(退溪)와 쌍벽을 이루는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서 조선조 성리학의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했지만, 또한 그러한 이론을 토대로 하여 성리학적인 가치관을 현실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나 가려 했던 대표적인 경세가이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은 윤곡의 행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오호라 우리 동방이 기자(箕子) 아래로부터 인의충신(仁義忠信)과 예악과 의관으로 인해 군자지국이라고 중국사람들에게 불려졌지만 성리를 연구하는 선비가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는데 고려 말에 이르러 정문충공(鄭文忠公-정몽주)이 비로소 도학을 창도하여 명유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게 되었으며 우리 조선에 이르러 더욱 성대해졌다. 그런데 학문이 고명한 데에 이르고 재주가 경세재민의 일을 감당할만 하면서도 진퇴를 의에 맞게 한 사람은 조문정공(趙文正公-조광조) 및 선생이다. 기묘년의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가 막히게 하니 어찌 차마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선생은 도를 밝히는 것으로써 자기의 임무로 여기고 시대를 구하는 것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아 비록 임천에 은거해

있을 때에도 일찍이 임금을 잊은 적이 없었으며 거듭 임금의 명을 받아 조정에 나아가면 자신의 지혜를 숨기지 않았으나 빈말에 그치고 시행되지 못하였으니 비록 그 말이 간절하나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선생이 학문을 논한 뜻은 그가 저술한 몇 편의 글 속에 환하게 실려 있으며, 왕에게 건의한 계책들은 전후의 상소문들 속에 보이니 모두 문집속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뜻을 가진 선비가 진실로 능히 그 말에인하여 그 마음을 구해보고 그 계책을 행하여 몸에 체득하고 나라 안에서 시행한다면 선생의 도는 비록 한 때에 행해질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만세를 위해 태평한 시대를 열어준 것은 그 공로가 가히 원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니 하늘이 세상에 뛰어난 훌륭한 대현을 낳은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조선조 성리학자로서 율곡의 학자적인 업적은 무엇보다도 그가 단지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이론가가 아니라 그 가치관을 현실 속에서 몸소 실천하려 한데 있다. 그런데 사림파의 도학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자부하는 그 실천은 어디까지나 철저한 위기지학(爲己之學)의 바탕 위에 서있다. 위기지학이란 자기 자신의 인격완성을 위한 학문이니, 이것의 근본은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욕구를 모두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만의 욕구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지켜야할 도리를 지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이단사상이란 경세를 도외시하는 도가나 불가뿐 아니라 의와 이의 구별에 철저하지 못한 양명학, 그리고 자기 한 사람만의 욕심에 따르는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

이런 입장 위에서 그는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 마땅히 힘을 다하여 몸을 바쳐야 할 일은 어버이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두가지일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윤곡이 생각한 성리학이란 인륜의 도리를 실천하고 의와 리를 분별하며 이를 미루어 정치와 사회에 펴나가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성학집요」를 선조에게 올리면서 성인이 되고 성왕이 되기 위한 학문이란 그 내용이 수기와 치인 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이런 윤곡의 태도는 50여 세부터 출사를 단념하고 학문연구와 후생교육에만 전념했던 퇴계와 대비를 이룬다. 그는 퇴계 만년에 퇴계에게 몇 번의 서선을 보내어 간곡하게 퇴계의 출사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윤곡은, 비록 퇴계 스스로 경제제민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바의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학문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당대에 퇴계를 짹할 자가 없으므로 백만창생의 생

명이 결여있는 군주 일인의 성덕을 위해서 반드시 퇴계가 상경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또 퇴계에게 말하기를 "금일의 일은 도리로 헤아려 보거나 옛 사람에게 질정해 보거나 시세로 저울질해 보거나 합하 자신의 입장을 참고해 보더라도 아마 끝내 물러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지만 퇴계는 끝내 벼슬을 사양하였다.

그러나 율곡은 몇 차례 낙향하기는 했지만 끝내 벼슬길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율곡이 벼슬살이에 연연하는 것은 부귀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아 백성을 도탄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런 점은 율곡이 선조에게 올린 사직소에서도 잘 보여진다. 그에 따르면, 선비가 군주를 섬기는 것은 이록을 위해서가 아니오, 군주가 선비를 등용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은택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덕에 힘입어 바른 정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제시한 계책을 실천해주지 않는다면 벼슬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사직의 이유였다.

이런 사람과 경세가로서의 율곡의 모습은 율곡의 인물됨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모습이며 또한 그가 생존했던 시대적 사회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율곡이 활동했던 시기는 정치, 사회적으로는 혼란과 부패가 심화되었던 때이며 또한 선비들의 사림의식은 사대사화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었던 때였기 때문이다.

- 知行
- 一家之人不化 只是誠意未盡
- 山不在高 有仙則名 水不在深 有龍則靈